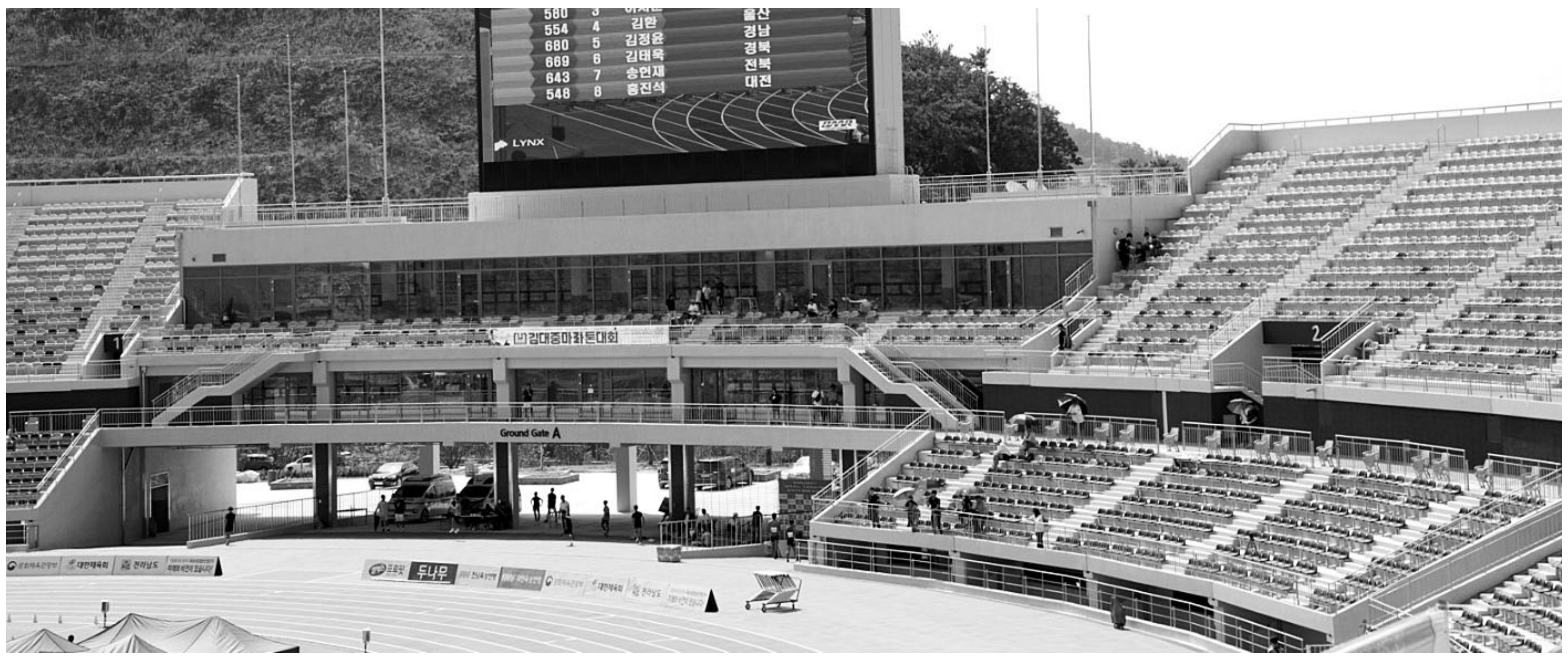
전국체전 준비 착착… 목포 메인스타디움 완공 눈앞

10월 13~19일 전국체전·11월 3~8일 장애인체전 개최
관람석 1만 6468석 공정률 99%…토목·조경공사 진행 중



제104회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될 목포종합경기장. 전국 규모의 육상 프레대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항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다. 〈목포시 제공〉

오는 10월과 11월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할 목포종합경기장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목포시에 따르면 대양동에 건립하는 목포종합경기장의 현재 공정률은 99%로 트랙과 지붕공사는 완료됐으며, 토목과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목포종합경기장은 2만 6468㎡의 면적에 지상 3층, 관람석 1만 6468석의 규모로 건립된다. 당초 지난 7월 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계속되는 장마 등으로 8월로 불가피하게 연기됐다.

이 곳은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개·폐회식과 육상경기 등 주 경기장으로 사용된다.

목포종합경기장에서는 오늘까지 전국 규모의 육상 프레대회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제44회 전국시·도대항 육상대회'가 열리고 있다.

시는 이같은 실전대회를 통한 시스템 점검을 거쳐 성공적인 전국(장애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국가 단위의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장애인)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목포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한뜻으로 성공체전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19일까지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이어 11월 3일~8일까지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진행된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영암 무화과·쌀·고구마주 나온다

군, 브랜드 개발 협약·시음회

영암군의 특산물 무화과로 만든 막걸리, 쌀과 고구마로 제조한 수제맥주 출시가 가시화되고 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 낭산실에서 삼호주조장과 '지역 대표 전통주 브랜드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시음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영암군과 삼호주조장은 이날 협약에 따라 앞으로 ▲전통주 개발 협력 강화 ▲전통주산업 성장·발전 기반 마련 등에 나선다.

특히 다음달 15~17일 열리는 영암 무화과축제에서 막걸리 등 전통주 시음행사〈사진〉를 갖기로 했다. 또 올해 10월 영암군민의날 행사에서는 정식으로 영암 전통주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식에 이어 영암군청 구내식당에서는 우승희 영암군수와 강찬원 영암군의장, 임정빈 농협영암군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주와 수제맥주 시음회를 열었다.

영암군 대표 수제맥주는 올해 출시를 목표로 제조 중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역농산물로 만든 영암 대표 술이 전국에 알려지고, 농가는 술 재료인 농산물을 계약재배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자"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서울서 핵연료 안전 관리 토론회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대책 시급"

임영민(오른쪽 두번째)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고준위 특별법 대국민 심층 토론회'에서 고준위법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군과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5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원자력 학계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고준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와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대국민 심층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행정협의회(협의회장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내 원전이 위치한 영광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울진군 등 5개 기초 지자체로 구성됐다.

토론회에서는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과 관련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조속히 착수하기 위해 고준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원전 지역 주민, 전문가, 관계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광군에서는 김정섭 부군수와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임영민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 위원 등 17명이 참석했다.

김정섭 부군수는 "고준위법은 현세대를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중요한 법안이고,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은 주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영되는 만큼 해당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임영민 영광군의회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빛 1·2호기 폐로를 약속한 이후 수명 연장에는 군민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설계수명 이내 발생량에 한해 임시 저장해야 하고 중간저장·처분시설 운영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표류 중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법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독립적 행정위원회 설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9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치면서 고준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해왔지만,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의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열 발생량이 1㎥당 2㎾,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4000베크렐 이상인 핵폐기물을 고준위 방폐물로 규정한다. 사용후핵연료가 대부분 이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국내에선 약 1만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 시설에 수용하고 있지만 2030년 한빛 원전부터 차례대로 포화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 242개 행복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주민 주도 벽화·꽃밭 조성…마을 경관 가꾸고 소득 창출

진도 242개 마을이 지역 특색에 맞게 '소통, 행복, 성장'을 찾는 '진도 242 소행성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진도군은 주민 주도 성장으로 지역소멸을 극복하자는 '진도 242 소행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진도 242 소행성 프로젝트'는 행정 주도적인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원주민의 마을 이탈 방지는 물론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진도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마을 주민이 직접 나서 마을 이야기 벽화와 꽃밭을 만들고, 골목길에 안심 조명을 설치하는 등 마을 경관 가꾸기와 주민소득 창출 사업이 골자다.

지난 16일에는 의신면 송군마을이 마을 경관을 개선했다.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 분위기를 띄우고, 골목길에 안심 조명을 설치해 마을 치안을 강화했다.

또 진도군은 마을 특색에 따라 수국 재배 단지를 만들어 마을 공동체의 소득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아름답고 안전한 마을 그리고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242 소행성 프로젝트'가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무안군-中 상숙시 '온라인 바둑대회' 성료

각각 7명 선수 참여 팀 대항으로 친목 다져…상숙시 승리

무안군이 국외 자매도시인 중국 상숙시와 함께 한 제2회 청소년 친선 온라인 바둑대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무안군과 무안군바둑협회 주관으로 양 도시에서 각 7명의 선수가 참여했다.

무안군 대표팀은 오룡초 안지원(1단), 최의재(2단), 영산초 이진혁(2단), 행복초 이용준(3단), 옥암중 이승재(3단), 한국바둑중 임재현(5단), 마리아회고 서수영(5단) 등이 출전했다.

상숙시는 상숙 실험초 고신역(3단), 보자초 손계태(5단), 석매초 이국의(5단), 세모실험초 탕승흠(5단), 곤승중 상근돈(5단), 금하중 장소(5단), 륜화외국어중 서령과(5단) 등으로 구성했다.

경기는 국가별 팀 대항전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상숙시의 승리로 경기를 마쳤다.

경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바둑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현장중계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연말까지 외국인 한국어 교육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연말까지 6개월 과정으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은 지난 6월 개강한 뒤 연말까지 이어진다.

주간 근로를 하는 외국인 주민을 위해 수업은 평일 야간에 진행한다.

이 수업에서는 일상생활과 근무처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표현력을 배우게 된다.

센터는 이달 현재 8개국 출신 39명을 교육하고 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영암군이 세한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두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장은 "고된 근로 중에도 열의를 갖고 한국어 교육에 참여해주신 외국인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외국인 주민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완도 정착 꿈꾼다면 귀농귀어학교 오세요

올해 상반기 열린 '완도군 귀농귀어 희망학교'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 제공〉

다음달 7일까지 모집

완도군이 올해 하반기 '귀농귀어 희망학교' 교육생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

완도군 귀농귀어 희망학교 과정은 예비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농업에 관한 기초 지식과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9월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한다.

농업에 필요한 기초 이론 교육과 선도 농가를 찾는 현장 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희망자에 한해 합숙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귀농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인이다. 이번 과정에서는 총 20명을 선발한다.

완도군은 청년 귀농인 모집을 위해 40대 이하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때 가산점을 줄 방침이다. 청년 참여를 늘리기 위한 간담회와 청년 정착 모니터링 등도 확대한다.

교육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갖춰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귀촌지원팀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지난 상반기 귀농귀어 과정에는 19명이 수료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